

벨로루시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07. 10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6
IV. 국제신인도	8
V. 종합의견	10

벨로루시

I. 일반개황

면적	208천 km ²	GDP	369억 달러(2006)
인구	9.76백만 명(2006)	1인당 GDP	3,804 달러(2006)
정치체제	대통령 중심제	통화단위	Belarus Rubel (BYR)
대외정책	친러시아	환율(달러당)	12.91(2006년말)

- 유럽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에 자리한 벨로루시는 구소련 연방 시절의 주요 공업지역으로서 1991년 독립 이후에도 정유, 기계, 화학산업 등이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음.
- 1994년에 집권한 현 Lukashenko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 등으로 2006년 3월 대선에서 3선에 성공하여 강력한 통치기반을 구축하고 소득재분배, 보조금 지급 등 국민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있음.
- 러시아와는 정치·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 등 서방세계와는 부정 선거, 인권 탄압, 언론 통제 등으로 대립하고 있음.

II. 경제 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

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 : %

구 분	2003	2004	2005	2006	2007 ^f
경제 성장률	7.0	11.5	9.4	9.9	7.8
재정수지 / GDP	-1.7	-0.3	-1.7	-1.4	-3.5
소비자물가상승률	28.4	18.1	10.3	7.0	8.3

자료 : IFS, EIU

□ 경제 성장세 다소 둔화될 전망

- 1999년 3.4%에 불과했던 GDP 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 연평균 7.5%를 기록하며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여왔으며, 2004년에는 11.5%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하였음.
- 2007년에는 내수확대 및 국내기업의 투자증가에도 불구하고 연초 러시아의 가스 수입가격이 110% 인상됨에 따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에너지 산업이 타격을 받아 작년보다 낮은 7.8%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며 향후에도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.

□ 소비자물가상승률 양호한 수준

- '90년대 말 외환위기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'99년에 250%에 육박하는 등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바 있으나, 이후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아 '06년에는 '91년 독립 이후 최초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한 자리수(7.0%)로 안정되었음.

- 정부는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, 서비스가격 통제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주력하고 있는데, 금년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료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높은 8%대를 기록할 전망이다.

□ 재정수지 안정적인 추세

- 대규모 국영기업이 재정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소련방 시절의 단순한 경제구조로 인해 탈세가 거의 없어 재정수지는 2003년 이후 GDP의 1~2% 수준의 소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해왔음.
- 2007년에는 가스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보조금 수요 등 재정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연초의 석유수출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전년보다 다소 증가한 GDP 대비 3.5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□ 국가 주도의 폐쇄적인 경제구조 유지

- Lukashenko 정부는 구소련 시절의 계획경제 체제 및 제도를 답습하여 국가 주도의 폐쇄적인 경제구조를 고수하고 있으며, 2000년대의 연간 7~8% 경제성장 달성은 경제개혁이나 개방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와의 유대 관계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분석됨.

□ 러시아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

- 정유산업이 전통적 제조업 분야(기계장비, 화학산업 등)와 함께 경제성장,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, 원유·가스의 공급을 대부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여부와 가격변동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.
- 또한, 2006년을 기준으로 러시아는 벨로루시 총수출의 34.7%, 수입의

58.8%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상대국임.

□ 지리적 요충지로서 제조업 기반 구축

-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에 자리잡아 주요 도로, 철도, 송유관, 통신시스템 등이 교차하고 있음. 러시아 중부·동부 지역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최단 경로와 발트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도로가 벨로루시를 통과하며, 러시아는 Yamal-유럽 송유관 등을 통해 서유럽 국가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음.
- 구소련 시대 이래 정유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으며 양질의 노동력, 재정수지 안정 등 강점을 가지고 있어 경제구조의 개혁, 개방이 수반될 경우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.

□ 재정정책의 비효율성

- 재정수지는 적자기조이나 최근까지 적자 폭이 연간 GDP의 2%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 등 경제의 강점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음.
- 그러나 재정수입에서 정유기업의 납세비중이 높고 재정지출은 소득재분배, 공공사업 추진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. 2006년 재정지출의 경우 국영기업 보조금이 전체의 12%, 공공부문 임금 22%, 대국민 지원금 28% 등으로 나타나 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지출이 부족한 취약점을 안고 있음.
- 한편 정부는 재정적자 보전에 있어 상업차관, 러시아·중국의 2국간 차관 등 대외차입의 비중을 높일 계획이어서 금년초 에너지 가격인상에 따라 재정적자 폭 확대, 외채 증가가 예상됨.

□ 외국인투자 부진

- Lukashenko 정부는 대유럽 원유·가스 수송로를 장악하려는 러시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극히 제한된 규모의 민영화를 실시하여 왔으나, 이례적으로 금년 1월 국영가스기업인 Beltransgaz를 러시아에 매각(지분의 50%, 25억 달러)하였음.

- 투자환경 미비와 정부의 간섭 등으로 인해 외국인투자 잔액은 2006년 말 기준 27억 달러(GDP의 7.5%)이며, Yamal-유럽 송유관 건설과 관련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음.
- 과학기술 분야 확대를 위해 '2007~10년 혁신발전 프로그램'을 채택하고, 자유경제구역 및 하이테크파크(High Technologies Park) 설립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음.

3. 대외거래

<표 2>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03	2004	2005	2006	2007 ^f
경 상 수 지	-434	-1,194	434	-1,512	-3,056
경 상 수 지 / G D P	-2.4	-5.2	1.4	-4.1	-7.6
상 품 수 지	-1,247	-2,184	-501	-2,398	-4,142
수 출	10,076	13,942	16,109	19,838	22,911
수 입	11,324	16,126	16,610	22,237	27,053
외 환 보 유 액	595	749	1,137	1,099	1,474
총 외 채 잔 액	3,232	4,028	4,734
총 외 채 잔 액 / G D P	18.1	17.4	16.0
D . S . R .	3.5	2.3	3.6

자료 : IFS, EIU

□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

- 경상수지는 2005년을 제외한 최근 수 년간 지속적으로 적자기조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, 적자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. 금년에는 수입품의 가격 상승 및 석유의 수출 부진으로 상품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,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7.6%인 약 3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외환보유액 부족

- 외환보유액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품수지의 만성적 적자, 외국인투자 부진 등으로 인해 2007년 3월 현재

약 13억 달러로 수입 1개월분에 불과함.

□ 총외채잔액 증가세

- 2005년 말 기준 총외채잔액은 47억 달러로 전년보다 7억 달러 증가하였으나, GDP 비중은 16%로 낮은 수준임. 2006년 말 현재 공공부문의 외채 규모는 8억 3,800만 달러(GDP의 2.3%)에 불과한데, 이는 미국, IMF 등이 개혁 및 개방에 소극적인 벨로루시에 대해 1995년 이후 경제적 원조 및 금융 지원을 중단하였기 때문임.

Ⅲ. 정치·사회동향

1. 정치 및 국제관계

□ Lukashenko 대통령이 1994년 이래 장기집권으로 강력한 집권체제 유지

- 1994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Lukashenko는 1996년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여 임기(5년)를 2001년까지 연장한 후, 2001년 9월에 압도적인 지지율(약 76%)로 재선되어 권력을 강화하였음.
- 이어 2004년 10월에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중임 제한을 폐지하고 2006년 3월 대선에서 83%의 지지율로 3선에 성공하였음.

□ 통합시민당, 벨로루시인민전선 등 야당의 세력은 미약

- 통합시민당(UCP), 벨로루시인민전선(BPE), 벨로루시사회민주당(BSDP) 등 야권세력은 친서방, 시장개혁, 러시아와의 통합 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, Lukashenko 정권의 강력한 견제와 언론 통제 등으로 원내 세력이 미약하고 분열되어 있어 정권을 위협할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.
- 따라서 Lukashenko 정권은 2008년 3월 총선에서도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

로 예상되며,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치 구도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.

□ 러시아와의 관계를 가장 중시

- Lukashenko 대통령은 구소연방 붕괴 이후 극심한 정치·경제적 혼란 속에서 국민들의 러시아 회귀 정서를 이용하여 1996년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러시아와의 정치·경제 연합을 추구하는 제1차 'Union Treaty'를 러시아와 체결하였음.
- 1999년에도 러시아와 경제, 통화, 외교, 국방정책을 조율할 초국가적 기구의 설립 등 광범위한 양국간 통합을 위한 제2차 'Union Treaty'를 체결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가지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음.
- 벨로루시는 구소련의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등 CIS 국가 중 친러시아 성향이 가장 높으며, 특히 군사, 교역 면에서 러시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.
- 러시아가 금년에 벨로루시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가격 인상, 차관(15억~20억 달러) 제공 결정 유보, 천연가스 수출대금 미납시 공급중단 경고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은 벨로루시의 최근 EU 접근 움직임에 대응하여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됨.

□ 개혁을 촉구하는 서방 압력 강화

- 최근 벨로루시 정부의 인권 탄압 문제를 비난하고 및 경제개혁 착수를 촉구하는 서방 세력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. 금년 6월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06년에 부과했던 대 벨로루시 제재조치(대통령의 미 관할권 내 사유자산에 대한 동결 및 고위간부의 입국 금지령)를 1년간 연장할 방침임을 발표하였음.
- 또한, 작년 말부터 부당한 노동제도의 개선을 촉구해 온 EU는 금년 6월에 벨로루시의 수출품에 제공되던 일반특혜관세제도(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: GSP) 적용을 중단하였음. 이에 따라 벨로루시 수출품의 10%가 영향을 받아 약 3,0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.

2. 사회 및 소요사태

□ 서방세계의 비난 속에서도 인기 위주의 정책 실시로 사회안정 유지

- EU와 미국은 1996년 헌법 개정과 2001년 대통령 선거 등을 비판하고, 2003년 EU의 언론자유 탄압 성명서 채택, UN의 인권탄압 비난 결의안 채택, 2004년 미국 하원의 '벨로루시민주화법(Belarus Democracy Act)' 만장일치 통과 등 현 정권의 인권 탄압, 언론 통제 등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행태를 비난하였음.
- 그러나 Lukashenko 대통령은 언론 통제와 아울러 각종 보조금 지급, 물가 안정, 사회복지, 낮은 실업률 등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어 사회적 안정이 유지되고 있으며 급격한 사회불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.

□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따른 정권전복 가능성은 미미

- 인종별로 벨로루시인이 81%이고 종교적으로도 러시아 정교가 약 70%를 차지하는 등 대체로 친러시아 성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,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독재 장기집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반정부 소요 발발가능성은 높지 않음.

IV. 국제신인도

1.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

□ S&P와 Moody's는 2007년 8월에 최초로 벨로루시에 신용등급을 부여했으며, 주요 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낮은 수준임.

- S&P : B+('07. 8)
- Moody's : B1('07. 8)
- Fitch : 없음.

- OECD : 7등급('04. 1) → 7등급('06. 1)
- Euromoney : 145/184('06. 9) → 141/185('07. 3)
- I.I. : 139/172('06. 9) → 136/174('07. 3)
- I.C.R.G : 93/140('06. 8) → 95/140('07. 7)

□ ECA 인수 태도

- US Eximbank : 인수불가
- Atradius :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인수가능
- ECGD : 인수불가
- Euler Hermes :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.

2. 외채상환태도

□ 외채상환 및 리스케줄링

- 2005년 말 현재 총외채는 47억 달러로 GDP의 16%를 차지하여 주변의 CIS 국가들에 비해 외채부담은 낮은 수준임.
- 공적 외채는 2006년 말 현재 8.4억 달러(GDP의 2.3%)로서 러시아, 독일, 미국이 주요 채권국임. 최대 채권국인 러시아는 벨로루시의 에너지 수입 관련 채무의 상환에 매우 관대한 입장을 취하여 왔으나 금년 7월에는 채무연체시 가스 공급 중단을 경고한 바 있음.
- 그러나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가 미약하고, 현 정권의 독재정치 및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확산됨에 따라 1995년 이래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등은 벨로루시에 대한 원조나 신용공여를 중단하고 있음.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국교수립: 1992. 2. 10 수교(북한과는 1992. 2. 3 수교)
- 주요협정: 투자보장협정('97), 이중과세방지협약('02), 무역협정('04), 과학기술협력협정('04)
- 해외직접투자(2007년 6월말 현재, 총투자 기준): 0건

- 2006년 우리나라의 대 벨로루시 수출액은 3,115만 달러(직물, 전자부품 등), 수입액은 659만 달러(철강, 석유사, 전자부품 등)로 양국간 교역관계는 미미한 수준임.
- 금년 2월 수교 15주년을 기념하여 설립된 한-벨 공동위원회는 민간부문 교류 확대, 재계인사 교차 방문, 주 벨로루시 한국대사관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음.

V. 종합 의견

- 구소련 시절의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정유를 비롯한 기계, 화학 산업이 발달하여 2000년대 들어 7~9%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도 한 자리 수로 낮아졌고 재정수지도 비교적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음.
- 금년 초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가격 인상으로 경제의 주축인 정유산업은 물론 물가, 재정, 경제성장, 경상수지 등에 다소 타격을 받을 전망이며, 외환보유액은 수입 1개월분 정도에 불과하나 외채규모는 주변 국가들에 비해 과도한 수준은 아님.
- Lukashenko 대통령이 1994년 이래 서방세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 등을 통해 장기집권하면서 소득재분배 등 인기 위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, 야당세력이 미약한데다 언론 통제 등을 통해 국정을 장악하고 있어 단기간에 별다른 정치적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.
- CIS 국가 중에서도 러시아와 정치·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천연가스 도입가격의 대폭 인상, 수입대금 미납에 따른 에너지 공급 중단 경고 등으로 다소 갈등을 겪었으며, EU와 화해 움직임을 보인 바 있으나 국가 주도의 현재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단기간에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.

해외경제연구소 전문연구원 심현정
(☎3779-6655) hjshim@koreaexim.go.kr